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청년농 지원 강화

주남현 기자 | 승인 2025.03.06 11:02

청년농소통협의회...올해 농지확보등 43억원 지원

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청년농소통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. /농어촌공사 제공

[한스경제=주남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(본부장 김재식) 광주지사는 지난 5일 청년농소통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는 청년농업인,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,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모색 및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.

광주지사는 2024년에 40억(맞춤형농지지원사업 32억,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8억)을 집행, 청년농 및 경영위기 농가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데 이어, 올해는 43억 예산을 확보해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지원할 계획이다.

김철상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청년농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겠다"고 말했다.



주남현 기자 tstart2001@sporbiz.co.kr

저작권자 ©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